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윤 재 근

(대진대학교)

《요약》

「다종교 사회와 종교지도자 교육」이라는 대주제 아래 시행되는 본 연구는, 한국의 신종교인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종교지도자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종교교육과 종교적 인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는 종교지도자의 종교적 인격이 종교인과 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선결해야 할 과제이며, 종교지도자 교육의 도구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종교교육에서는 '종교적 인격의 성숙을 위한 자기 계발로서의 공부(工夫)'와 '신도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수강(授講)과 연수(研修)'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들이 공부, 수강, 연수 등을 통하여 종교적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며 이것은 또한 그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순진리회에 있어 종교지도자의 교육문제가 제도화된 교육 내지 교육과정에 의하지 않고 현장중심의 종교 수행능력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관계되는 수행의 문제는 종교적 인격의 심화와 아울러 현대의 종교인과 종교지도자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시사성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I. 논의의 성격

한국은 반만년의 자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민족 고유의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적 문화전통의 배경은 종교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것

의 근거를 설화적 내용에서 찾아내는 것은 다소 비지성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민족의 태동에서부터 종교성을 엿볼 수 있거니와¹⁾, 그것도 최고신의 관념²⁾과 결부되었을 때는 민족적 자존을 내세우는데 한 몫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한국적 문화전통의 가치는 한국인들의 사유체계와 행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들에 바탕을 두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한국종교사의 부침현상은 한국인의 가치관 형성과 그 맥을 같이 하며 한국의 지성사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대변이라도 하듯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으며 같은 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신문과 영상 매체에서 강력 범죄의 현장을 목격한다. 한국인의 가치관을 논급하면서 늘 따라 다니는 ‘종교적 문화 가치’ 내지 ‘종교에 영향받은 우리의 가치감정’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특정의 종교를 언급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보도되는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일련의 사태는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불교계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다. 한국종교연감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2.5배를 넘고 있다. 한국인은 모두가 종교인인 셈이다. 그러므로 조계종의 사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억지 같은 주장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매스미디어에 드러나지 않은 여타의 종교인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일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본 학회에서 다루려는 「다종교 사회와 종교지도자 교육」이라는 대전제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국사회의 신종교인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종교교육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종교적 인격에 관한 논의와 아울러 종교교육의 몇 가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주어진 과제인 ‘종교지도자 교육’의 내용이 대순진리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현장 중심의 종교 수행 능

1) 이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의 기이제일(紀異第一) 편을 참고 할 수 있다. 지은이 일연(一然)도 자서에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神異)한테서 나왔다는 것이 괴한 일이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화적 내용은 당시대의 종교문화성을 살피는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2)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이(紀異) 권(卷) 제일(第一), 고조선(古朝鮮)-왕검조선(王儉朝鮮)- 편에서는 단군 왕검의 시원을 환인(桓因)으로 삼고 있는 바, 이때의 환인을 제석(帝釋)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불교적 제석천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되며 한국적 사유방식에서는 최고위의 신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력과 관계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이는 본 연구자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화두 삼아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하다.

II. 종교교육과 종교적 인격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은 그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특정종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신앙심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특수한 색조를 가진 종교적 가치체제를 형성하게 하는 종교교육이 있는가 하면,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신앙체제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정조(情操)교육이 있다고 하겠다.(岸本英夫, 박인재 역:1983)

이를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특정 종교의 종파 교육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의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이 있다. 이것은 대내 교육으로서의 교역자 양성 교육 또는 성직자 교육과 평신도 교육, 그리고 대외교육으로서의 선교교육이 있을 수 있다.(윤이흠, 1986:279-281) 다음으로는 특정한 종교의 교리 내용이 아니라 원숙한 인격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지향성으로서의 종교성(religiosity)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 in narrow meaning)'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의 개별 종교전통을 포함하여 종교 일반의 본질과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종교 지식 교육을 포함하는 종교 문화교육으로서의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이미 1996년의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박선영 교수에 의해 논급된 바가 있다³⁾.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종교교육이든 간에 종교교육의 제일의적 의미는 두드러진 전인적 인격교육의 기능에 있다고 할 것이다. 탈냉전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무엘 헌팅턴(S. Huntington)은 이미 문화권과의 상호 충돌을 예견하고 있으며 문명을 전제로 한 이때의 문화는 종교의

3) 박선영 교수는 위 학회의 발제에서 종교의 기능과 종교교육의 성격에 관여여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존 듀이가 실명사로서의 '종교'와 형용사로서의 '종교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에 시사 받아 종교교육을 그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종교교육학 연구 제3권'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용을 떠나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겠다.(Huntington, 1996) 종교가 생활로 나타나는 양상에서 종교에 관한 제 교육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숙한 종교적 인격을 그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당위를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여기서 올포트(G.W. Allport)의 인격에 대한 견해, 슈프랭거(E. Spranger)와 제임스(W. James)가 얘기하는 종교적 인격의 유형과 아울러 성숙한 종교적 인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⁴⁾

1. 인격의 특성과 종교적 인격의 유형

올포트(G.W. Allport)에 의하면 인격이란 “개체안에 있어서 그 사람의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정신-신체적 체계의 다이내믹한 조직체”(Allport, 1961)라고 한다. 인격은 문화적인 규범에 규제를 받고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격은 진화의 첨단에 선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추상적인 사변에 의하여 가치론적으로 규정된 ‘인간’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부터 현재까지 전해오는 ‘문화’라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 사람의 특질, 성격, 기질, 소질, 특징 따위가 복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을 종합한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포트는 인격의 구성단위를 특성(trait)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인격은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행동을 특징짓는 표출적 특성과, 특성의 상황상황에 대한 적응양식으로서의 태도적 특성을 들고 있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결정하는 개인의 행동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조합해서 습관이나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올포트는 특성을 인격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이다. 동일한 문화에서 공통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소속된 사람은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공통적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성이란 본래 개인 고유의 타고난 소인이나 개별적 체험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그는 개별적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교적 인격 또한 개인의 심리적 면뿐만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

4) 종교적 인격에 대한 부분은 小口偉一, 堀一郎 監修(1973, 東京大學出版會)의 ‘宗教學辭典’에서 宗教行動, 宗教의 人格, 宗教의 態度 부분을 재인용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적 인격이라는 것은 개인이 소속하는 집단의 종교나 관습을 자신의 인격 구성 요소로 내면화함으로써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나 관습을 함께 하는 집단의 성원을 집약하는 것이 그 집단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이며 종교적 인격은 집단의 퍼스낼리티를 토대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슈프랭거(E. Spranger)는 기본적인 생활의 형식을 들어 무엇에 관심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인격을 6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는데(Spranger, 1922), 이론적 인격형, 경제적 인격형, 심미적 인격형, 정치적 인격형, 사회적 인격형, 종교적 인격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분석적 경향일 뿐 개인이 특정의 유형으로 분류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위의 6가지의 인격에 대한 태도적 특성이 복합되어 한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슈프랭거가 말하는 종교적 인격이란 항상 최고의 절대적 존재자 안에서의 삶을 궁극적 가치로 생각하고 일체의 것을 이러한 궁극적 가치에 의하여 통일하며, 따라서 초월적 세계로 지향하려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격을 갖춘 종교적 인간에는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적극적 가치를 절대자의 은총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 세계와 생활의 내용을 최고 절대의 가치로 높이려는 내재적 인간형이 있다. 또한 종교적 가치 이외의 모든 세속적 가치를 부정하고 내적 관조나 금욕적 수행에 의해서 성스러운 최고의 가치를 파악하고 현실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초탈하여 무한의 자유에 도달하려는 초월적 인간형이 있다.

제임스(W. James) 역시 슈프랭거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인간의 유형을 두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건강한 마음(healthy mindedness)’과 ‘병든 혼(sick soul)’의 두 가지 유형이 그것이다.(James, 1958: 76-139 참조) 건강한 마음의 종교적 인격은 주어진 현실을 긍정하고 불안이나 고민과 같은 것을 느끼지 않으며 감사와 만족 속에서 생을 영위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현세를 버리고 다른 세계를 추구하지 않으며 죄악감에 짓눌려 절대자를 찾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제임스는 이러한 유형을 ‘일생형(一生型: once-born)’(James, 1958: 76-78)이라고 했다. 병든 혼을 가진 종교적 인격은 죄악감, 좌절감, 위기감 등을 가지고 있어 회의, 불안, 혐오, 고뇌, 비애 등과 같은 수축적 요인의 근원을 항상 자기 안에서 구하는 유형이다. 현생의 삶을 부정하며 다시 태어나서 이상적인 세계에 살기를 갈망하는 바, 이를 제임스는 ‘이생형(二生型: twice-born)’(James, 1958: 76-78)이라고 했다. 널리 알려져 있

는 바와 같이 제임스는 회심(回心: conversion)(James, 1958: 157)이나 병든 혼, 종교적 재생(再生)에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니 위의 '이생형'이야말로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성숙한 종교적 인격⁵⁾

올포트(G.W. Allport)는 인격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Allport, 1950: 63-83참조)

① **자아의 확대(extension of the self)** : 자신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헌신해야 할 범위가 확대된다.

② **자기 객관화(self objectification)의 가능** :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기 통찰력을 말한다.

③ **통일적 인생 철학(unifying philosophy of life)** : 무엇인가 포괄적인 인생관에 의하여 인생에 통일을 가져다주는 위치를 잡을 수 있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

올포트에 의하면 어떠한 사람이든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노선을 따라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성숙성을 기반으로 하여 성숙한 종교 정조가 형성되는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① **충분한 분화(well differentiated)**: 관심이 다양성을 띠고 있어 사물을 보는 시각이 일방적이지 않다.

② **역동성(dynamic)**: 생리적, 신체적 직접 충동에 지배되지 않고 조율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이를 "기능적 자율성(the functional autonomy)" 이라고 부른다.

③ **도덕적 일관성(production of a consistent morality)**: 종교와 도덕성을 분리시키지 않고 성숙한 종교인의 경우 종교 정조가 일관하여 그 사람의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간다.

④ **포괄적(comprehensive)**: 성숙한 종교적 정조의 소유자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5) 이 부분의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황선명 교수의 종교학개론(1983, 종로서적)의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포용하며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

⑤ **통합적(integral)**: 여러 가지의 문제를 단순히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 있는 전체 구조 가운데 통합시킨다.

⑥ **통찰성(heuristic)**: 한 군데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단계로 파악되는 신앙의 존재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즉, 회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한 신앙에 대해 절대적 헌신을 한다.

제임스의 경우는 올포트의 성숙한 종교적 정조와는 대조적으로, 올포트의 이성적인 측면에 비해 제임스의 “성자성(saintliness)”으로 표현되는 종교가의 특성은 오히려 정서적인 색채가 짙다. 올포트는 광범위한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성숙성의 이상 기준을 세웠지만 제임스는 특수한 종교적 인물의 분석에 기초하여 성자성(聖者性)을 추출했다(James, 1958: 256-262). 제임스에 의하면 “인간이 종교를 자기의 인격적 에너르기의 중심으로 하여 살 때, 영적인 감격에 의하여 저절로 움직여지고 그러할 때 그 인간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전의 육체적 자기와는 틀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자는 어떤 종교에 있어도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성자성” 이라고 한다. 제임스는 그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보고 있다(James, 1958: 256-291).

① 이 세상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생활보다 아주 광대한 생활 가운데 있다고 느낀다.

② 이상적인 힘과 자신의 생명과의 사이에 친애의 연속성이 있다는 의식이 있다.

③ 폐쇄적인 이기심의 외곽이 무너지면서 의기가 높고 무한하며 자유롭게 된다.

④ 감정의 중심이 조화 있는 애정으로 이행한다.

이와 같은 기본 상태에 수반하여 금욕주의, 강한 심정, 청정한 마음, 자애와 같은 독특한 실천 결과가 나타난다.

올포트나 제임스가 종교적 인격의 성숙에 관하여 제시한 견해는 중요하지만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대체로 사람은 이와 같은 종교 내지 정신적 성숙성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특히, 제임스가 말하는 “성자성”이란 상당한 신비체험 또는 궁극적 가치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구현되기 힘들 것이다.

Ⅲ.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종교교육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피교육자가 원숙한 인간이 되도록 내재적 능력을 계현 시켜주는 의도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북돋워 주며,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통일된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표라고 한다면 전인적 인격교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전인적 인격교육의 측면에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호소력 있게 전수하는 고전적인 신뢰가 바로 종교교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원숙한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며 종교교육의 제일의적 의미는 바로 전인적 인격교육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지식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분야별 세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은 점점 더 전인적 인격교육의 측면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이 현재의 교육에 있어 소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종교가 인격교육의 전형적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동시에 특정종교의 교리내용을 주입하는 도그마티즘의 극단적 인격형성을 초래하는 폐단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비교 될 수 없는 종교에 있어서의 전인적 인격교육의 기능을 부각시키면서 교조적 독단론을 가능한 한 배제하는 프로그램을 갖는다면 현대교육에 있어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다종교 사회에서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질서의 조화를 유지하게 하는 정신적 태도의 연마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어느 교과목과도 비교되지 않을 효과가 기대된다.

한마디로 그것은 개인의 내면적 신념과 현대사회에 있어 질서의 조화를 꾀하는 원숙한 현대지성인을 육성하는 것이며 이는 종교교육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다.

대순진리회에 있어 종교교육의 문제는 전장에서 언급한 개인의 종교적 인격을 심화시키는데 치우치고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가 있거니와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종교지도자는 전적으로 현장중심의 종교수행능력과 관계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종교적 신념의 실천을 통해서 도헌6)에 따라 그 직위가 부여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대순진리회의 종립학교인 대진대학교에서는 1995년에 대순종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학과는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교육이념에 적용하여 국가와 인류 평화에 기여할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몇 번의 교과과정이 변천되었는데 소속된 단과대학과 더불어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교육과정별 최저 이수학점

연 도	학 부	학 과	교 양 과 목				전 공 과 목			일반선택 <부전공21> 교직(20)	계
			필수	선택	전공 계열 교양	소계	필수	선택	소계		
1995 ~96	인문 학부	대순종학과	15	21	6	42	30	42	72	26	140
		국어국문학과	15	21	6	42	27	45	72	26	140
		영어영문과	15	21	6	42	30	42	72	26	140
		철학과	15	21	6	42	24	48	72	26	140
		사학과	15	21	6	42	30	42	72	26	140
		아동학과	15	21	6	42	39	33	72	26	140
		미국학과	15	21	6	42	45	27	72	26	140
		일본학과	15	21	6	42	30	42	72	26	140
1998		대순종학과	16	12		28	15	39	54	58	140
		국어국문학과	16	12		28	9	27	36	76	140
		영어영문학과	16	12		28	0	36	36	76	140
		철학과	16	12		28	9	27	36	76	140
		사학과	16	12		28	9	27	36	76	140
		문헌정보학과	16	12		28	9	27	36	76	140
		아동학과	16	12		28	9	27	36	76	140
		문예창작학과	16	12		28	9	27	36	76	140

6) 대순진리회의 도헌 제 6장 포정원(布政院) 편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임원을 선정부(宣正部)와 교정부(敎正部)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직위의 임원 수임에 대한 규정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연 도	학 부	학 과	교 양 과 목				전 공 과 목			일반선택 <부전공21> 교직(20)	계	
			필수	선택	전공 계열 교양	소계	필수	선택	소계			
1999	인문 과학 대학	학 과	대순종학과	2	26		28	15	39	54	58	140
		인문과 학계열	국어국문학과	2	26		28	0	42	42	70	140
			영어영문학과 (주,야)	2	26		28	0	42	42	70	140
			철학과	2	26		28	9	33	42	70	140
			사학과	2	26		28	9	33	42	70	140
			문헌정보학과	2	26		28	9	33	42	70	140
			아동학과	2	26		28	9	33	42	70	140
		학 과	문예창작학과 (야)	2	26		28	9	33	42	70	140

<표> 대순종학과 교육과정

연도	학년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 목	1학기			2학기		
					학점	시간	실습	학점	시간	실습
1995~ 96	1	전공 필수	041001	대순종학개론	3	3				
			041002	동양종교의 이해				3	3	
	2	전공 필수	041011	대순사상 I	3	3				
			041013	전경서설	3	3				
			041012	대순사상 II				3	3	
			041014	대순종단사				3	3	
		전공 선택	042011	대순신관	3	3				
			042013	유교철학	3	3				
			042015	불교철학	3	3				
			042017	종교사	3	3				
			042012	대순상제관				3	3	
			042014	전경강독 I				3	3	
			042016	도교철학				3	3	
			042018	교부철학				3	3	
			042020	한국신종교사				3	3	
		전공 필수	041031	천지공사론	3	3				
			041033	동양종교윤리	3	3				
			041032	대순종지론				3	3	
			041034	대순윤리학				3	3	
	3	전공 선택	042031	전경강독 II	3	3				
			042033	음양합덕론	3	3				
			042035	신인조화론	3	3				
			042037	중도론	3	3				
			042032	해원상생론				3	3	
			042034	도통진경론				3	3	
			042036	대순수도론 I				3	3	
			042038	개벽론				3	3	
	4	전공 선택	042071	대순수도론 II	3	3				
			042073	포덕교화방법론	3	3				
			042075	대순전경특강	3	3				
			042077	비교종교학	3	3				
			042072	종무행정론				3	3	
			042074	대순의례실수				3	3	
			042076	대순철학특강				3	3	
			042078	민간신앙특강				3	3	
			042080	역사상				3	3	

연도	학년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 목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시간	실습
1998 ~99	1	전공 필수	041001	대순종학개론	3	3				
		전공 선택	042021	종교학						
			042022	동양종교의 이해	3	3		3	3	
			042024	한국종교의 이해				3	3	
	2	전공 필수	041013	전경서설	3	3				
		전공 선택	041022	종지론				3	3	
			042011	대순신관						
			042017	종교사						
			042023	불교사상사	3	3				
			042025	대순종단사	3	3				
			042027	수도입문	3	3				
			042012	대순상제관	3	3		3	3	
			042028	도교사상사	3	3		3	3	
			042030	한국신종교론	3	3		3	3	
			042042	전경강독				3	3	
			042044	수도실수				3	3	
	3	전공 필수	041033	동양종교윤리	3	3				
		전공 선택	042029	유교사상사						
			042038	개벽론						
			042041	천지공사론	3	3				
			042039	대순종학교육론	3	3		3	3	
			042046	종교심리학	3	3		3	3	
			042048	대순인간관	3	3		3	3	
			042050	종교수행론				3	3	
			042073	포덕교화방법론				3	3	
	4	전필	041024	대순의례실수	3	3				
		전공 선택	042023	경전해제	3	3				
			042072	종무행정론	3	3				
			042052	역학특강				3	3	
			042054	한국종교특강				3	3	
			042077	비교종교학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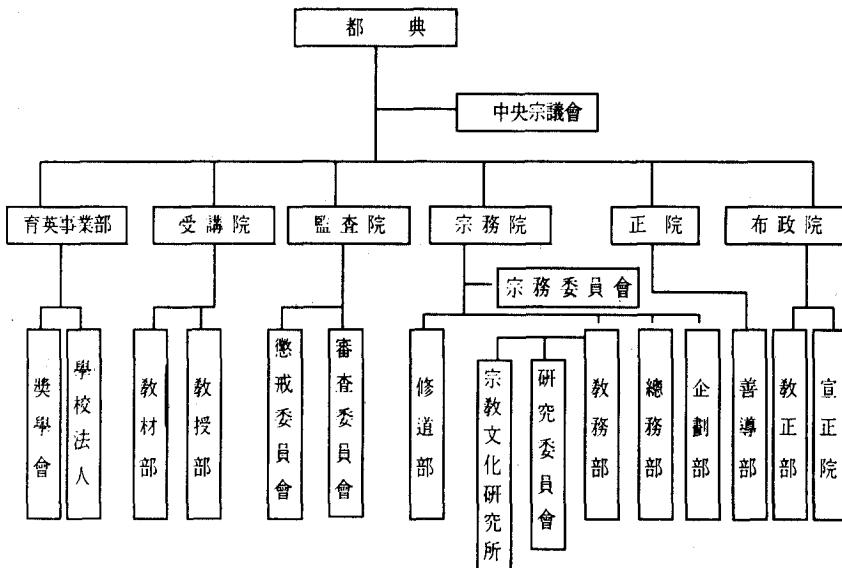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대순종학과의 교과과정은 종교에 대한 학문적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나름대로의 균형있는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종교인의 교양 습득과 전문적 지식의 내용을 심화시키는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순종학과 졸업생이

대순진리회에 있어 일정 정도의 종교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된 상태이다. 이것은 앞으로 현장중심의 수행능력에 비례하는 임원과 더불어 대순종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병립할 수 있는 종교지도자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1. 종교적 인격의 성숙을 위한 자기 계발로서의 공부(工夫)

대순진리회의 도헌⁷⁾ 제 57조와 58조에 의하면 선정부 및 교정부의 임원은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각각 그 직위를 수임한다고 되어있다. 물론 전제되는 것은 본 종단의 종지와 도헌을 찬동하고 소정의 입도 절차를 이수한 도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인이 도헌에 의거하여 일정한 직위의 직급을 부여받는 것이니 우선 대순진리회 전체의 조직 체계를 도표로써 알아보면 위와 같다.

=====도 표 - 대순진리회의 조직 체계=====



7) 대순진리회의 도헌은 총 12장 126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순 102년(1972년) 2월 7일에 제정되었다. 3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현재는 대순 115년(1985) 2월 19일 개정된 도헌이 최종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위 도표에 있어 선정부의 임원은 포덕의 연원공적에 따라서 각각 그 직위가 수임이 되는데 선감은 1000호 이상, 차선감은 700호 이상, 선사는 300호 이상, 선무는 100호 이상으로 그 기준이 도헌에 명시되어 있다(대순진리회 도헌 제57조). 교정부의 임원은 연원공적과 교화실적에 따라 각각 교감, 교령, 교정, 교무의 직위를 수임받는다(대순진리회 도헌 제58조). 정원의 임원은 보정, 정무, 정리로 구성되는데 정원의 임원은 제반 공무에 따라 그 직위를 수임받는다(대순진리회 도헌 제63, 64조). 포정원과 정원의 임원은 그 임기를 두지 않으며 소속 방면 상급임원의 추천으로 도전이 임명한다(대순진리회 도헌 제61, 66, 67, 68조). 이와 같이 대순진리회에 있어 종교지도자는 정원과 포정원의 임원이 그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이들은 종교적 인격의 심화를 위하여 개인적 수행체계로서의 수도공부(修道工夫)를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에 있어 수도(修道)란,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上帝)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精神)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는것”(대순진리회 요람: 15-16)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늘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며 정심(正心)에 이르도록 하여 상제를 모시고 영통의 통일을 위해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일념으로 받드는 것이 수도인 것이다. 심·신의 균형, 신·인의 조화를 견지하는 수도는 인간과 외계 사물의 동체주의적 내용을 구명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천지보다도 크다’(전경. 행록 3장 34절: 48)고 하는 창조적 자기표현은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게 하여 주체적 자발성과 사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윤재근, 1996:116 - 119).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행(修行)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祈禱), 수련(修鍊), 공부(工夫)등인데 이러한 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겠다.

1) 개별적 수련 행위로서의 기도(祈禱)

기도공부는 대순진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앙의 대상에게 기원하는 의식으로, 평일기도와 주일기도로 구분된다. 주일은 5일마다 있으며 월력의 갑(甲)·기

(己)일로 정해진다. 평일기도는 매일 진(辰), 술(戌), 축(丑), 미(未) 시에 소정의 주문을 각자의 집이나 또는 소정의 장소에서 봉송하는 것이다. 주일 기도는 5일마다 오는 갑(甲)·기(己)일의 자(子), 오(午), 묘(卯), 유(酉) 시에 소정의 주문을 각 회실이나 회관에서 봉송하는 것이다(대순종학교재연구회, 1998: 219). 이외에 수시로 수련(修鍊)을 할수 있는데 주문 전체를 봉송한 후 태을주를 계속하여 반송하는 것이나 2시간 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공부의 기본 자세는 법좌(法坐)로 한다.

2) 대순진리회의 공부(工夫)

대순진리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부⁸⁾는 여주 본부도장의 시학 공부, 시법 공부, 수강과 중곡동 도장에서 시행되는 기도 공부, 포천 수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강 그리고 제주도장과 금강산 도장에서의 연수가 있다.

시학공부는 여주본부 도장에서 시행되는데 매일 1반씩 교체된다. 1반은 3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열(列)로 하고 1열은 12인으로 한다. 3열의 전열(前列)은 시학원(侍學員) 1인, 정급(正級) 2인, 진급(進級) 3인, 회원(會員) 6인으로 하고 제2열은 남자수도인 12인으로, 제3열은 여자수도인 12인으로 한다. 시학원 및 정, 진급은 정원과 포정원의 상급임원이 되며 회원은 중간임원이 된다. 또한 남자수도인과 여자수도인은 각각 외수(外修)와 내수(內修)라고 칭하며 평도인이 된다.

방(房) 4개에 1인이 1시간씩 공부를 알리는 종소리에 맞추어 교대하여 공부하되 전열은 1일에 2시간씩, 제 2, 3열은 1일에 3시간씩 공부한다.

공부주문(工夫呪文)으로, 전열은 칠성주(七星呪)⁹⁾, 운장주(雲長呪)¹⁰⁾이고 제 2, 3

8) “도주께서 이 해(정유년: 1957) 11월에 도인들의 수도공부의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는 시학(侍學) 시법(侍法)으로 구분케 하고 각 공부반은 36명으로 하며 시학은 5일마다 초강식(初降式)을 올리고 15일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며 45일이 되면 봉강식(奉降式)을 행하게 하고, 시법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 인원은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서 구성하고, 시학원은 담당한 공부반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올리고 진급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 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侍學官)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셨도다”(전경,교운, 2장 62절).

9) 七星如來 大帝君 北斗九辰 中天大神 上照金闕 下覆崑崙 調理綱紀 統制乾坤 大魁貪狼 文曲巨文 祿存廉貞 武曲破軍 高尚玉皇 紫微帝君 大周天際 細入微塵 何災不滅 何福不臻 元皇正氣

열은 태을주(太乙呪)¹¹⁾, 기도주(祈禱呪)¹²⁾, 도통주(道通呪)¹³⁾로 한다. 이와같은 시학 공부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전일반과 후일반의 교체시각은 하오 11시로 녹명지(錄名紙)를 지정시간에 반드시 올리고 소상한다.

② 각 반원은 지정 시각, 지정 공부실에 들어가 전(前)반원이 비켜주는 자리에 부복, 분향한 다음 법좌하여 좌배하고 전(前)반원의 송주가 끝남과 동시에 지정된 주문을 한시간 연송한다.

③ 지정 주문을 연송하기 전에 봉축주 1독, 태을주, 기도주, 각 4독씩 봉송하되 갑병무경임(甲丙戊庚壬)의 양일(陽日)에는 태을위시(太乙爲始: 태을주로부터 시작)로, 을정기신계(乙丁己辛癸)의 음일(陰日)에는 기도위시(祈禱爲始: 기도주부터 시작)로 하여 일진의 음양에 맞춘다.

④ 공부 시간이 끝나면 들어오는 반원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법좌하여 송주를 계속하다가 다음 반원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마치고 좌배, 심고한 다음 퇴실(退室)한다.

⑤ 평일의 진술축미(辰戌丑未) 4시와 주일의 자오묘유(子午卯酉) 4시를 더한 8회의 기도는 전 반원이 합동으로 1시간을 모시되 주문을 평상시처럼 봉송한 다음 태을주와 기도주를 일진의 음양에 맞추어 호선(互先)으로 반시간씩 연송한다. 다만 그 시간에 공부한 반원은 다음 시간에 보충 기도를 모시되 평상시처럼 전체 주문 봉송후 태을주 기도주 각 24독을 봉송한다.

다음으로 강식(降式)은 초강(初降), 합강(合降), 봉강(奉降)으로 구분하되 5개반의 공부가 끝나면 초강식을 올리고, 15개반의 공부가 끝나면 합강식을 올리고, 45개반

來合我身 天罡所指 晝夜相輪 俗居小人 好道求靈 願見尊儀 永保長生 三台 虛精 六旬 曲生 生我 養我 護我 身形 魁杓 觀衡 필보표 尊帝 급급 如律令

10) 天下英雄 關雲長 依幕處 謹請天地 八位諸將 六丁六甲 六丙六乙 所率諸將 一般兵營 邪鬼 음 음 급급 如律令 娑婆啊

11) 흠뽁흠뽁 太乙 天上元君 흠뽁뽁야都來 흠뽁喊哩 娑婆啊

12)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至 願爲人降

13) 天上元龍 坎武 太乙星 斗牛君 神呀神呀 三呀三呀 以 道通道德으로 上通天文하고 下達地理하고 中察人事케 하옵소서

(1號)의 공부끝나면 봉강식을 올린다.

초강식(初降式)은 180명(36명×5개반)으로 하오 11시에 첫반을 시작으로 본전(영대) 4층에서 거행된다.

영대에서는 정렬, 취석면수, 일동배례, 법좌, 부복을 시킨 다음 “평심정기(平心正氣)하여 지성으로 발원(發願)하라” 하는 계훈(戒訓)을 호창(呼唱)한다.

이어 책임 시학원이 주문 전문을 봉송하며 각 반 전원이 봉축주 1독, 태을주 4독, 기도주 4독을 봉송하는 것으로 마친다. 이렇게 5개반이 순차로 봉행하면 초강식이 끝나게 된다.

합강식(合降式)은 5개반씩 3번의 초강식을 마치면 15개반(540명)으로 합강식(合降式)을 거행한다. 15개반을 3개반씩 나누어 5반으로 한다. 합강은 내, 외수 72명이 영대 4층에서 참여한다. 시학관, 시학원은 영대에서 시립(侍立)하며 정, 진급 회원은 본전 3층에서 시립한다. 우측에 정급 가운데 진급 좌측에는 회원으로 시립한다. 의식 차례는 초강식과 같다.

합강식을 세번 올린 후 45개반(1호=1,620명)전원이 봉강식(奉降式)에 임한다. 1반부터 45반까지 차례로 본전 영대앞인 본정(本庭)에서 시립하여, 봉강문을 구령자가 선독(先讀)하면 일동이 일제히 봉독하되 “금수대도술부터 해원신”까지 3독하는 것으로 봉강식을 마친다. 이때 사용되는 봉강문은 다음과 같다.

봉강문(奉降文)

대강식(大降式)은 생략(省略)하옵고 후일(後日)을 기(期)하오나 날자나 기념(紀念)하기 위(爲)아옵서 봉강중(奉降中)이오니 봉강식(奉降式)으로 현알(見謁)올리옵니다.

금수대도술(禽獸大道術) 천지대팔문(天地大八門)

일월대어명(日月大御明) 인간대적선(人間大積善)

시호시호 귀신시호(時乎時乎 鬼神時乎)

시구시구(矢口矢口) 조을시구(鳥乙矢口)

대강대강(大降大降) 해원신(解冤神)(진경: 691, 태극진경: 9장21절)

이렇게 봉강식으로 1호(1,620명)를 마치며, 1년 360일동안 8호까지 12,960명이 시학 공부에 임한다. 대순진리회에 있어 시학 공부는 바로 후천 5만년 천지 도수를 짜나가는 아주 중요한 공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학 공부를 마친 반원(班員)이 시법(侍法)공부를 할 수 있다.

시법 공부는 강식을 포함한 시학 공부를 마친 제1반부터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

이 공부에 대해 조정산 도주는 “侍法 工夫는 즉석강식(卽席降式)이니라. 시학(侍學)을 마치고 시법(侍法)만 하면 누구나 도통(道通)의 경지를 찾아仙境(仙境)에 참여할 수 있으리니 이 곧 유일무이(唯一無二)하고 외차무극(外此無極)한 태극의 진법임이니라.”(진경:687, 태극진경:9장8절)고 말한바 있다.

공부반 편성은 시학반에 준하여 매일 1반씩(36명) 교체한다.

시학원, 정급, 진급, 회원의 1인과 1인의 내·외수 각 1인씩 3인 1조(組)의 총 36명을 12개조로 편성한다. 각 조가 상·하오에 각각 한시간씩 순차로 공부실에 들어가 중앙에 회원, 그 우측에 내수, 좌측에 외수가 횡렬(橫列)로 법좌하고 진법주(眞法呪)를 합동(合同)으로 연송(連誦)하며 공부한다. 이때 공부반의 교체 방법, 인원 점검, 봉심 행사, 기도 방법, 대기 등은 모두 시학 공부의 방법과 같고 유의사항도 또한 그렇다. 다만 봉심에서는 시학반보다 먼저 봉행하며, 강식을 거행하지 않는 일이 시학공부의 방법과 다르다.

대순진리회 최초의 도장인 중국 도장이 건립되고 1971년 영대를 봉안한후 1974년 4월 5일(음)에 18명으로 처음 시법공부(侍法工夫)가 진행되었다.

1975년 2월 7일(음)에는 24명으로 실시되다가, 같은 해 11월 20일(음)부터 36명으로 정해졌다.

여주 본부도장의 현 본전이 완공된 후 시학, 시법 공부가 시작된 91년 전까지 시법 공부로 봉행되다가 그 이후 현재까지 기도 공부로 진행되고 있다.

공부와 내용, 방법 등은 여주의 본부 도장에서 실시하는 시법 공부와 동일하다. 3인 1개조로 진법주를 봉송한다. 다만 정, 진급반이 따로 정해져 있어 시학원부터 일반 평도인까지 31명과 그 날의 정, 진급 5명이 매일 교체되고 있다.

2. 신도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수강(授講)과 연수(研修)

1) 수강(授講)

대순진리회에서의 수강은 여주본부도장과 포천수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수강의 목적은 대순진리의 교직자의 자질을 높이고 고급의 교직자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강은 대순진리회 교직자--교무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부에 참여하는 인원은 72명의 내·외 수도인으로 2박 3일간 실시하며 수강의 내용은 전경을 중심으로 전경의 각편(행록·공사·교운·교법·권지·제생·예시)을 담당하는 수강강사의 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수강의 절차와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강 첫째날의 일정

※13:00~13:30 - 출석점호 및 좌석배치 ※13:30~13:50 - 봉 심
 ※13:50~14:00 - 개강식 ※14:00~17:50 - 수강 50분 수강 10분 휴식
 ※18:00~18:50 - 저녁식사 ※19:00~20:00 - 기도 ※20:30~22:30 - 질의토론
 ※01:00~02:00 - 축시기도

수강 둘째날의 일정

※09:00~11:50 - 오전수강 ※12:00~12:50 - 점심식사 ※13:00~14:00 - 기도
 ※14:20~17:50 - 오후수강 ※18:00~18:50 - 저녁식사 ※19:00~20:00 - 기도
 ※20:30~22:30 - 질의토론 ※01:00~02:00 - 기도

수강 셋째날의 일정

※09:00~11:45 - 오전수강 ※11:50~12:00 - 나가는 봉심

주일날에 수강을 시행할 경우 들어오는날 또는 둘째날 11:00기도만 모신다.

2) 연수(研修)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수는 제주수련도장과 금강산수련도장에서의 연수가 있다.

제주도 연수는 1개반이 120명으로 구성되며 5박 6일의 일정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동·서·남·북, 문화·종교·언어 유입의 중심지로 모든 것이 시작되

는 첫 관문이다. 변화무쌍한 기후, 다양한 토질, 이질적인 문화, 관습 등을 통하여 수도인(修道人)들이 신명(神明)과 함께 상생(相生)으로의 변화됨을 의미한다고 한다.

문화의 중심이 여성(음:水)이고 사면이 바닷가(水)이므로, 이 수기(水氣)를 바탕으로 한곳에 세계의 지기(地氣)통일 공사를 위해 바로 연수가 실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수많은 원한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에 해원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연수 중에 제주도를 동서남북의 중요한 유적지로 견학하게 되는데, 이는 제주도에서 맺힌 원한이 풀리고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의 원한이 자연스럽게 풀리어 해원상생과 후천 선경 세계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 연수를 통해 수도인들이 현장 견학과 진리 탐구, 지기 통일과 수많은 신명들을 해원시켜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도인간에 화합, 단결 등도 중요한 목적이다.

제주도 연수는 매주 금(金)요일에 출발하여 수(水)요일에 일정을 마치게 된다.

금강산 도장 연수는 1996년 1월 31일 (음 12. 12)에 처음 시작되었다. 도장이 금강산 제1봉인 신선봉(神仙峯)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연수 기간중 금강산의 마지막 봉인 낙타봉, 말무리, 반도, 해금강, 동해 바다로 이어진 코스를 관람하는데,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금강산 대순진리회 토성 수련 도장으로 명명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강산이 대순진리회이고 대순진리회가 곧 금강산이라 할 수 있다. 즉 금강산은 12,000봉이고 그 기운이 응기하여 12,000명의 도통 군자가 나온다고 믿고 있으며, 대순진리회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금강산 12,000기운이 응기되고 유, 불, 선의 3합(三合)의 도(道)로 창성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셈이다.

금강산 도장 연수는 5박 6일 일정으로 수(水)요일에 출발하여 월(月)요일에 마치게 된다.

IV. 여전히 남는 문제들

위에서 살펴본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종교 교육 프로그램은 종단내 교육으로서의 신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것은 주로 개인의 종교적인 인격의 성숙을 위한 자기 계현의 개별적 수도행위와 일반신도들의 자질을 함양 시키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연수와 수강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제도권 교육기관으로서의 대진대학교에서 대순종학과를 설치하고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인 해원상생을 교육이념에 적용하여 국가와 인류평화에 기여할 교역자의 양성을 대순종학과에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종단의 삼대 기본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순진리회에서의 종교 지도자는 현장중심의 자기 수행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도현에 명시되어 있거니와 이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는 대순종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이 도현에 명시된 임원 승급의 기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해결의 과제이기도 하다.

앞서 논의 한 바 있는 종교적 인격의 문제는 개인의 장에 있어 종교적 가치 체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이것은 다시 종교적 태도에 대하여 전환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종교적 태도에 의거해서 종교 행동이 향외(向外)적으로 나타나며 제 종교에서의 종단내 교육은 이것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겠다. 대순진리회의 종교 교육에 있어서도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무시 수행방법으로서의 기도와 정형화 된 단계별 공부를 통하여, 올포트가 이야기하는 자아의 확대, 자기객관화, 통일적 인생 철학 등의 규준은 개인의 종교적 인격 형성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심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제임스의 성자성으로 표현되는 종교가의 정서적 특성 또한 어느 정도 심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공부를 마친 몇몇 수도인을 통하여 상당한 신비체험 또는 궁극적 가치 체험의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는 대순진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학, 시법 등 공부의 전과정을 단계별로 이수하여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대순진리회에 있어 종교지도자 교육의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와 같은 공부나 수강, 연수 등은 개인의 종교적 인격성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는 별도로, 종교적 성직자가 신념 내용의 이론적 체계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중심의 능력에 비례하여 종교적 성직자로 등장하는 것 또한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겠다.

〈 참고 문헌 〉

- 전경(1974). 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 주문. 서울 : 대순진리회.
- 도헌(1972). 서울 : 대순진리회.
- 대순진리회요람(1969). 서울 : 대순진리회 교무부.
- 대순종학교재연구회 편(1998). 대순사상의 이해. 경기도 포천 : 대진대학교 출판부.
- 태극도 편찬위원회 편(1989). 眞經. 부산 : 태극도 출판부.
- 삼국유사(三國遺事).
- 박선영(1978). John Dewey의 宗教教育觀. **사대논총**, 1. 서울 : 동국대학교사범대학.
- _____(1997).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 서울 : 한국종교교육학회.
- 윤재근(1996).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 2. 서울 : 한국종교교육학회.
- _____(1997A). 陰陽合德 一試論 —음양론에 관한 몇 가지 논의—. **대순사상논총**, 2. 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 _____(1997B). 神人調化에 나타난 神人關係 研究. **대순사상논총**, 3. 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 _____(1998). 大巡眞理會 宗旨의 個別的 特性. **대순사상논총**, 6. 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 윤재근 외(1998).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아름다운 세상.
- 윤이홍(1986). 한국종교연구 권 1. 서울 : 집문당.
- 장병길(1989).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황선명(1983). 종교학 개론. 서울 : 종로서적.

岸本英夫, 박인재 역(1983). 종교학. 서울: 김영사.

小口偉一. 堀一郎 監修(1973). 宗教學辭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Allport, G.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_____ (1950).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 Macmillan.

Huntington, S.P.(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Spranger, E.(1922). *Lebensformen*, Niemeyer, Halle.

James, W.(1958).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Ontario: mentor book.

Manslow, A.H.(1973). *Religions, values, and peak - experience*. New York: The King Press, Inc..